

“항시 최선을 다하면서

서울제15지구의료보험조합

보건업무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람.
 자신의 일에 항시 최선을 다하는 사람.
 현위치에 만족하면서 자신보다도 남을 걱정하는 사람.
 청렴결백한 생활신조를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
 서울제15지구의료보험조합 정흥모 대표이사.



▲『창의, 성실, 인화의 조합 훈이 바로 서울제15지구의료보험조합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밝히는 정흥모 대표이사

◎...영등포관내 1,200개 사업장 적용가족들의 건강관리에 무더운 날씨를 가장 뜨겁게 보내고 있는 서울제15지구의료보험조합 정흥모대표이사를 만났다.

◎...『건강관리에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만 건협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홍

보자료를 개발하여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점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줄 것입니다.』 서울 제15지구의 향후 건강관리에 대한 청사진을 정대표이사는 밝힌다.

◎...『전염병이나 노쇠등에 의한 사망율이 높았던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성인병이나 사고에 의해 사망하는율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국민 모두가 장수하려면 우리들 자신이 현세대에 알맞은 건강관리에 유념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국민모두의 건강지식 수준이 보편화되어야 하겠고 이를 위한 합리적인 지식전달 체계가 서야 하겠으며 이를 실천하는데 힘써야 하겠지요.』 국민보건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소신과 가치관을 밝히는 정대표이사는 제15지구의 경우 모든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組合訓이 창의·성실·인화입니다. 위유내강이라는 말처럼 저희 조합은 인화 단결을 가장 중요시 하고 친절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 흥모 대표이사

30여년간의 오랜시간을 보건계에서 생활했다.

임상병리부문에서 첫 출발을 한 그는 항상

어떤 어려움이있어도 그것을 이겨내는 강한 의지를 가진이 이기도 하다.

건강소식 5분인터뷰에 초대한다.

절대시,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여년간을 공직에 몸담았던 정대표이사의 얼굴에서 깊은 경륜을 볼수가 있었다.

◎…『저역시 임상병리계통 출신입니다만 우리나라 임상병리사제도는 조금은 개선할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위와 자율성이 확립되는 제도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보건분야중 음지에서 일하고있는 사람들의 위치의 부수적인 관계가 개선 확립되는것을 바란다는 정대표이사는과거, 보건분야인 결핵병원에서 일한바 있다.

◎…『86년 5월30일 이곳에 부임하면서 현재까지 1,200여 사업장 의료보험 적용가족의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허나 아쉬운점은 사업장과 조합간의 대화가 조금은 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말해 주인정신이 약간은 결여되어 아쉬울때가 많지요.』 계속적으로 개인주의 사상이 번져가는 요즘은 우리모두가 한가족임을 재인식해야 함을 강조

하는 정대표이사는 “하면된다”는 생활신조로 살아온 자신의 옛날과 요즘의 젊은 세대를 비교할때, 앞날이 기대되는 싱그러운 젊은세대가 부럽기만 하다고 한다.

◎…건협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 기생충 및 성인병퇴치 영화와 슬라이드도 상호 협조하여 건강교육을 실시 한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협조를 당부하기도 -.

◎…영등포관내에 소개하고 있는 조합에서는 우선 교육방법으로 직장교육, 순회 홍보교육등으로 크게 나누어 실시하는데 1,200여개 사업장에 대하여 직장교육, 편입사업장교육, 홍보교육등 년20회 이상 년중사업으로 실시 한다고 한다.

◎…탁구, 테니스로 신체를 단련했다는 정대표이사는 부인 이기화여사와 3남 2녀를 둔 다복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항상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생활철학이라고 재강조 한다.